



## 海外情報

### ○ 태국 TCC, 작년도 비료 판매량

日商岩井, 센츨초자와 태국 기업의 합작 비료회사인 타이·센츨·케미컬(TCC)의 2000년도 비료 판매량은 100만톤을 초과하여 거의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계획에서는 120만톤 정도의 목표를 세웠으나 잠정 집계에서 이에 미달된 결과로 끝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집계되는 확정치에서도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TCC의 비료 판매는 자사의 복비를 중심으로 해외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과 합하여 2000년의 100만톤 초과 판매한 경우 자사 제품 7할과 나머지 3할은 해외제품이라고 한다. 해외제품은 요소, 황산암모늄, DAP, 가리 등으로 많은 출처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못미친 것은 그 나라의 일기 사정 즉 비가 많이 오고, 수해를 입는 등 순조롭지 못한 날씨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판매가격 인상으로 수요자의 매기가 둔화된 것에 더하여 같은 업종의 타 회사인 국영비료회사(NFC)나 타이비료회사(TFC)와의 경쟁도 심했다는 것 등이 요인이 된 것 같다.

2000년의 판매량은 2월말쯤에 확정되겠지만 지금으로는 거의 전년과 같은 양으로써 TCC의 금년도 판매 계획량은 전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CC의 복비 생산능력은 120만톤으로 이의 판매를 과제로 삼고 있으며 또한 같은 업종인 타 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9일 >

### ○ 일본, 카프로락탐 감산 확대로 유안 수급 곤란

관련 메이커들의 유안 수출문제는 카프로락탐의 감산에서 시작, 자금흐름이 어려워지고 거래에서 생각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가는 것 같다.











